

시선

사설

11월의 레임덕
끝까지 책임 다하라

아침마다 바뀌어가는 캠퍼스의 색깔을 바라보며 올 한해도 끝이 다가옴을 실감한다. 대학사회에서 한 해 단위로 바뀌는 것이 한 둘이 아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1년 임기 선출직 학생회다. 11월이 되면 양 캠퍼스 총학생회(총학)는 차기 학생회 구성을 위한 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중앙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올해도 선거 일정이 공고됐으며 관례대로 현 학생회의 면면들이 선거관리위원을 맡는 모양이다.

학생회칙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학생회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딱 채운 한 해 동안 선출된 학생회는 학생을 위해 소임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임기가 두 달 가까이 남은 11월에 접어든 학생회는 유명무실하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10월 초중순 축제준비를 시작으로 중간고사를 거쳐 선거체제까지, 2학기 이후 학생회의 역할은 미진하기만 하다.

할 일을 끝냈다면 또 모를까, 산적한 현안들을 두고도 해결할 의지도,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국제캠퍼스 총학은 지난 4월 총여학생회 존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로 여태껏 학생 총투표 일정을 ‘고려’ 중이다. 총여학생회 존폐 문제는 올해 대학가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떠올랐지만 ‘다른 사안이 많아서’, ‘시험기간이라 투표율이 저조할까봐’ 투표 여부 자체도 이젠 불투명해 보인다. 여전히 임시 사용승인 중인 행복기숙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서울캠퍼스 총학 역시 관련 사안을 아직도 ‘내부 논의’ 중이다. 총여학생회와 관련한 사안에서는 ‘의견 수렴만 하고 존폐 여부는 다음 총학이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이쯤 되면 11월의 학생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을 오롯이 마치고자 할 의지가 있는지, 혹은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인지. 괜히 일을 벌였다가 수습을 못한 상태로 임기 말을 맞는 것이 두려운 것인지. 끝나지 않는 내부 논의와 조율은 언제 끝이 나는 것인지. 하고는 있는 것인지.

레이덤이라는 말이 있다. 보통은 권력 말기에 야당 등 주변의 견제로 권력자의 정책 수행이 어려움을 의미하는 용어다. 몇 해 전만 해도 단위 학생회 대표가 중앙 단위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레임덕을 야기한 적이 있기는 하다. 지금의 학생회는 스스로 일을 저버리면서 절름발이 오리가 되기를 자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학생들이 믿고 맡긴 권력 수행의 의지를 스스로 꺾었으니 이는 데드덕, 오히려 자살한 오리라 칭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11월 초에 벌써 이러한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학생회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고हे두기 위해서다. 물론 우리의 대표자들 자신이 이를 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충실히 이행한 공약도 있으니 공과는 임기 끝에 다시 한 번 가리면 될 일이다. 다만 앞서 언급한 사안들 외에도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학생사회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 등 여전히 학생회의 업무가 남아있음을 상기하길 바란다. 임기가 끝나는 12월 31일까지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회 임기는 ‘끝나가고’ 있는 것이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대학은 지금

학내 기구 역할이 커진 대학사회

안나연 기자 na@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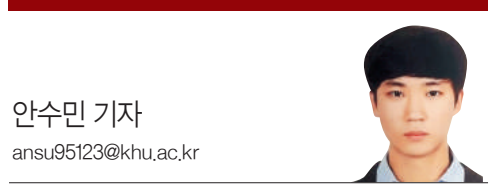
10월 12일 서울대 총장예비후보자가 정해짐에 따라 오는 9일 후보자 정책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총장예비후보자 결정, 정책평가는 내달 9일/대학신문, 2018.10.14.)** 총장예비후보자는 강태진(재료공학) 명예교수, 남익현(경영학) 교수, 오세정(물리·천문학) 명예교수, 이우일(기계항공공학) 교수, 정근식(사회학) 교수다. 이들 중 3명이 총장 후보자로 선정될 예정이다.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평가는 정책평가에 25%의 비율로 반영되지만 일각에선 총추위의 특정 후보 지지 활동을 확인했다며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화여대에선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 총장이 면담을 통해 성폭행 가해 교수의 처분 등을 논의했다.**(중운위와 총장 간 대화, 올해 처음 열려/이대학보,**



이 주의 주제 - SPACE21 사업

SPACE21, 분발한 모습 보여줘야 한다



안수민 기자
ansu95123@khu.ac.kr

SPACE21 사업은 지금까지 서울캠퍼스 행복기숙사와 신촌단과대학동, 국제캠퍼스 선승관과 외국어대학 리모델링 사업 등을 통해 결실을 보았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SPACE21 2단계 사업이 별 탈 없이 진행될지에 대한 구성원의 반응은 차갑다. 이는 SPACE21 사업단이 그간 보여준 모습 때문이다.

SPACE21 사업은 1단계 사업 시작부터 예산 문제로 뼈저대는 모습을 보였다. 2007년에 공식적인 추진을 발표하였지만 재정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진행이 늦춰져 2013년 조감도를 공개하기 전까지 어떠한 진척도 없었다. 본격적인 사업은 추진 발표 이후 7년 만에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문제로 순탄하지는 않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SPACE21 1단계 사업 당시 우리학교는 전체 사업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약 500억 원의 기채를 발행했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빚더미에 안게 됐다. 2017 학년도 회계기준 대학알리미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에 따르면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16.1%이다. 사립대학 평균 부채비율이 3.4%인 것과 비교에 월등히 높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SPACE21 2단계 사업인 ‘글로벌타워’의 설계는 기존 10층에서 7층 규모로 축소될 예정이다. 완성된 선승관도 체육대학

자체적으로 발전기금을 모으지 않았더라면 착공이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확한 예산 책정에 실패해 무리한 계획을 하고 이후 예산에 맞춰 재설계를 반복하면서 시간·금전적 손실은 커져간다. 이로 인해 구성원은 신뢰를 잃어가는 듯 보인다.

또한 학내 구성원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진행 상황의 지속적인 발표와 상호 소통도 부족했다. 지난 7월에 진행된 대학평의원회에서 직원 노동조합 김영진 사무국장은 SPACE21 2단계 사업 관련 내용을 ‘처음’ 접했다.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원 대표도 SPACE21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일반 구성원은 더욱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간의 실사용자인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한데도 말이다.

여태껏 SPACE21은 구성원과의 소통에 귀를 막고 있는 듯하다.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은 꾸준히 ‘독립 건물’을 요구하였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설계를 진행하다가 재설계를 진행했다. 또한 신공학관도 공과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된 기존 설계안을 뒤엎고 홍익대 건축학과 이현호 교수의 설계안을 수용했다. 이는 민주화를 교시로 삼고 있는 우리학교에서 민주적 소통의 부재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의 건물은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포용해야 한다. 그만큼 과정은 쉽지 않다. ‘사업비 확보’와 ‘구성원들의 의견 반영과 조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설계를 계획하고, 또한 다양한 구성원과의 소통과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가 수반돼야 한다.

과 사실로 확인됐다.

동국대 2018학년도 하반기 전학대회는 의결을 위한 최소 인원이 모이지 않아 폐회됐다.**(형평 빈 논의장…호지부지된 전학대회와 대의원 총회/동대신문, 2018.10.01.)** 2018학년도 하반기 대의원 총회 역시 학생대표자 참석인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아 폐회됐다. 전학대회는 전체 학생 대표자 92명 중 47명이 참석해 개최했으나, 중도 이탈이 늘어남에 따라 39명만 남아 ‘총장 선출제 관련 논의’가 무산됐다. 대의원 총회는 총회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스스로가 대의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등을 이유로 저조한 참석률을 보였다.

연세대에선 학생회칙이 존재하지 않아 총여학생회 존폐에 대한 학생총투표 진행이 어려웠다.**(학생 자치의 기본, 회칙이 없다/연세춘추, 2018.10.8.)** 학내 구성원을 대표하는 공식 기구에 회칙이 없어 총투표 참여 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내 16개 단과대 중 공과대, 상경경영대, 의과대에 회칙이 없는 점이 확인됐다. 회칙이 없는 단과대는 총학생회의 회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자치기구로서 자치성과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과 기자 그 사이

세시봉

이후승 <국제 뉴스 팀장>



지난달 12일, 가을 대동제가 끝이 났다. 개교 이래 최초로 진행된 양 캠퍼스 공동 개최에 맞게 우리신문도 축제에 관한 취재를 준비하고 기사를 작성했다. 주 이용자층이 학생인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의 반응은 뜨거웠고 개·폐막식 내용을 담은 기사의 조회 수도 높았다. 하지만 해당 기사(양 캠퍼스 공동 대동제 성황리 마무리/대학주보 온라인, 2018.10.12.)의 댓글에선 난리가 났다.

축제 후 22일부터 26일까지는 학교가 지정한 중간고사 기간이었다. 우리신문 기자는 학생 기자라는 애매한 신분이다. 기자이지만 학생이기도 하다. 학교의 일을 올바르게 알리는 기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학생이어야 기자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업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시험 준비에 들어간 기자들이 받은 것은 응당한 ‘비판’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의 ‘비난’이었다. 해당 기사의 댓글에는 ‘축제 기사만 작성한다’에서부터 ‘조회 수 조작하고 무거운 기사를 뒤로 미룬다’, ‘기레기 연습하나’는 내용까지 등장했다.

현재 학내를 뒤흔드는 소식은 많다. 가장 뜨거운 감자인 총장 선출제부터 소식 없는 SPACE21 2단계 사업 등 대학차원의 문제와, 국제캠퍼스(국제캠) 총여학생회(총여) 폐지 문제 등 학생사회 문제까지 가벼운 사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맞게 우리신문은 관련 사안을 열심히 쫓아왔다. 지난해 민주적인 총장 선출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후 우리신문은 계속해서 취재해 올해 발행된 11개의 신문 중 8개 신문에서 해당 사안을 1면에 비중 있게 다뤘다.

SPACE21 2단계 사업은 사업단의 폐쇄적인 태도가 취재를 어렵게 만든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만큼 학내 구성원의 관심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9월 우리신문은 SPACE21의 문제점을 짚고 이후에도 수차례 2단계 사업 진행상황을 물었지만 ‘확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최근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총여 폐지의 바람이 우리학교에도 불었다. 국제캠 총여 존폐문제가 곧 총투표에 붙어질 예정이지만 총학생회(총학)는 총여 존폐 문제에 관해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고 전방만 나열하는 모습이다. 열려야 할 확운위는 열리지 않고 있다. 더구나 총학 주관의 큰 행사인 축제 동안 총학의 업무역량이 축제에 집중되니 해당 기간 총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혹자는 우리신문을 ‘어용’이라 하고 성향과 논조를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의견은 우리신문을 읽지 않았거나 본인의 뜻에 따라 일이 풀리지 않는 사람들의 투정이다. 기자는 기사로 말하면 된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변을 남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도도 없음을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자기다짐이기도 하다.

우리신문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학교에 있는 모든 독자들이 알고자 하는 바를 공정하게 밝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길에 독자들도 의심 없는 눈으로 감시자가 되어줬으면 한다. 총장 선출제, SPACE21, 총여 이외에도 더 무겁고, 더 다양한 사건까지 늘 당신들의 옆에서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